

중국 거주 한국인의 주생활특성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Koreans' Housing Life Living in China

조성희*
Cho, Sung Heui

손진희**
Son, Jin Hee

Abstract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design, the meaning, and the use of domestic space by comparing different cultur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housing life living in western cultures has already been studied extensively.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housing life living in Chinese culture has hardly been studied at 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of domestic housing culture.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methods from fifty Korean households and eleven Chinese households. Individual interviews and actual surveys, including taking pictures were also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An analysis of heating system usage behaviors showed the importance of heated floors, known as Ondol, is one of the enduring characteristics of domestic habits. (2)In the sitting style, the traditional sitting on the floor was shown in living room. (3)Regarding room usage behavior, Korean households were centered around the living room in chinese houses. (4)An analysis of space organization preferences with respect to common spaces revealed that Korean households tend to prefer the open plan of common spaces.

Keywords : housing life, space usage, domestic housing culture, behavior study

주요어 : 주생활특성, 공간사용, 주문화, 행태연구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거환경은 문화적 독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요소로서 고유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다(Kent, 1993). 주거공간에서 거주자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의 결과물로서 주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사회적·경제적 개방 정책은 값싼 노동력과 12억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겨냥한 많은 외국기업의 진출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주택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주생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둘 이상의 독자적인 문화체계의 결합에서 비롯되는 문화접변¹⁾의 요구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단편적으로 중국의 주거나 생활

상이 하나 둘씩 국내에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의 주택에 관한 연구들은

1) 중국 전통민가에 관한 연구(윤정숙, 2000; 전봉희 외, 2001; 김성우, 2000; 이원식, 2002)와 중국 지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손세관, 2000; 2) 동양문화권의 주거문화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심우갑 외, 2000), 그리고 3) 중국 거주 조선족의 주거 및 생활에 관한 연구(최금화, 2002; 김장수, 2000; 김순익, 1996; 김진우, 1997)등으로 아직은 중국주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거주 한국인들이 중국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나타내는 주생활특성을 공간사용행태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한국 주거문화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요소와 변화되는 요소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중국주택에 적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한국 주생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접변의 기회가 증가되는 오늘날 한국 주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¹⁾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회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박

**정회원,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석사

1) 문화접변이란 문화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상이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관계에 들어 갈 때 그 결과로 인해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칭한다(한상복 등, 1994, p104).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중국거주 한국인의 주생활 특징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중국의 주택 및 주생활에 관한 문헌연구를 시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7월 17일부터 2003년 8월 15일까지 중국 남경시에 거주하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30가구는 실측 및 면접(설문답변에 대한 구체적 이유)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중국 주생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중국인 가구²⁾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11가구)하고 그중 3가구는 실측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글과 한문 두가지로 작성³⁾하여 사용하였고, 그 내용은 가구특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18문항), 난방방식 및 기거양식(11문항), 실사용행태(17문항), 그리고 선호하는 공간 구성(29문항)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주택정책 및 도시주택의 변천과정

1949년 이전의 중국에는 이렇다 할 주택정책이 없었으나, 중국 경제발전과정의 제1단계인 ‘전후 회복기와 제1차 5개년 계획(1949-1957)’까지의 주택정책에는 공인(工人)주택의 거주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제2단계인 ‘대약진기와 경제조정기(1957-1965)’에는 도시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였다. 제 3단계인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에는 주택정책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최고조로 이른 암흑기라 할 수 있고, 제 4단계인 개방기(1977이후)부터 주택정책이 다시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주택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여

는 목표가 수립되었다(심우갑 외, 2000). 개방기 이후의 주택정책은 제6차 5개년 계획부터 제7차, 제8차, 제9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구분된다(정희남, 2002; 姚琳, 1998).

중국 초창기(제1~2단계에 해당됨)의 집합주택은 소련의 표준설계<그림 1>를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규모가 큰 편이었다<그림 2; 上北恭史, 1995>. 소련에서는 1인당 거주면적을 대략 9㎡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당시 중국의 1인당 거주면적은 대략 4㎡수준이었으므로 소련 모방형 주택보다 소규모의 주택을 모색하게 되어, 투간형(套間形)⁴⁾주택이 나타나게 되었다(심우갑 외, 2000; 友清貴和, 1989). 따라서 이러한 투간형 공간 결합은 소련의 영향이 아닌 중국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上北恭史, 1995).

70년대 초반(제 3단계인 문화대혁명시기에 해당됨)에 나타난 집합주택을 보면, 한 주호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평면으로 화장실은 공동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간단한 형식이었다. 이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가 나타났다<그림 3>.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주호 구성에 변화를 보이게 되어 한 주호에 한 세대만이 살도록 계획되면서, 독립적인 화장실, 부엌, 그리고 침실이 만나는 곳에 이전의 복도 공간과는 다른 중간적인 생활공간이 나타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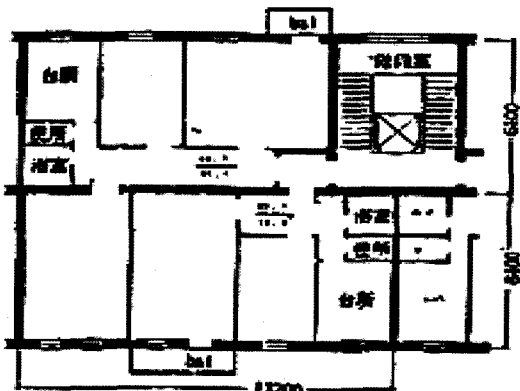


그림 1. 소련평면설계('55) (자료: 友清貴和,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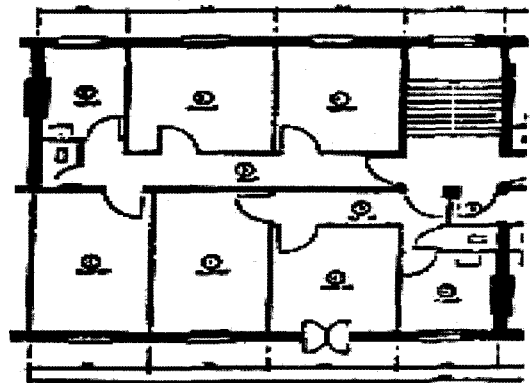


그림 2. 중국평면설계('56) (자료: 友清貴和,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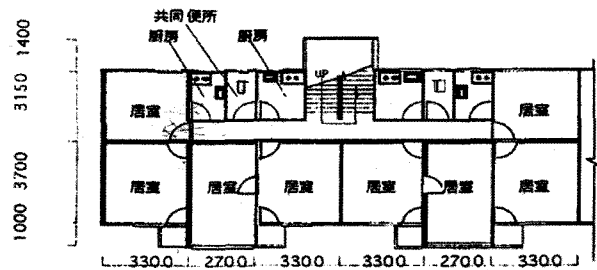


그림 3. 70년대 초 주택(1973) (자료: 상해시 직공주택 '73; 上北恭史, 1994)

- 2) 한국인 가구와 동일한 아파트를 선정하였음.
- 3) 중국인을 위한 한문 설문지는 한글과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기본 작성을 한 후, 그 내용을 중국인이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 4) 두 개 이상의 방이 연결되어진 것으로(직접 밖으로 출입할 수 없고) 다른 방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복도 면적을 절약하기 위해 실을 통하여 다른 실로 이동하도록 구성된 불편한 구성형태이다(表野聖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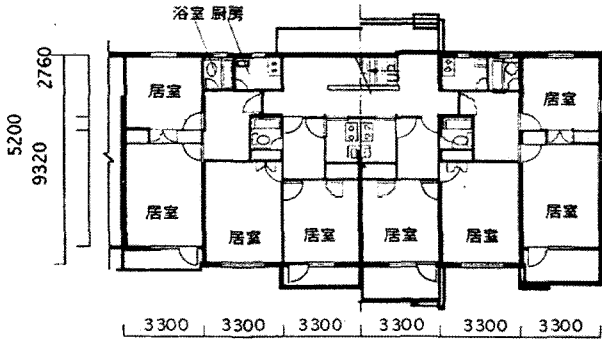


그림 4. 70년대 말 주택(1978)
(자료 : 동제신촌 '78-05형; 上北恭史, 1994)

되었다. 이곳은 '청(廳)'이라 불리는 공간으로 정착되어 중간생활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4>. 점차 청이 규모가 커지면서, 식사·단란·접객이 이루어지는 공적공간으로 확립되었다.

2. 중국 집합주택의 특징

1) 일반적 특성

현재 중국의 주택은 1자녀 정책에 의한 세대인수 감소로 인해 3-4인의 주거가 일반화되어, 주침실외에 1-2개의 침실이 계획된다.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와실(臥室-침실), 객청(客廳-거실), 찬청(餐廳-식당), 주방(廚房), 위생간(衛生間-화장실), 양대(陽臺-발코니)등이 있다(심우갑 외, 2000).

중국 집합주택에서의 주거의 타입을 표현할 때 1980년대 이전은 1실호, 2실호, 3실호로 칭하였고<그림 5>, 이후 청의 출현으로 청(廳)을 중심으로 와실의 수에 따라 평면형을 1실 1청, 2실 1청, 3실 1청 등으로 구분하였다(林方亮, 소화 63, 友淸貴和, 1989).

평면 구성에서는 한국의 정방형과 달리 1:2에 가까운 폭:깊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 주택규모가 커짐에 따라 크기가 커지는 한국의 안방 경우와 달리 중국의 주와실은 전체 면적이 증가해도 거의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다(심우갑 외, 2000). 보통 남쪽에 주침실을 두고 북쪽에는 외기에 면하는 주방을 위치시킨 후, 주방 옆이나 주침실 옆으로 또 하나의 침실을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는 거실보다 침실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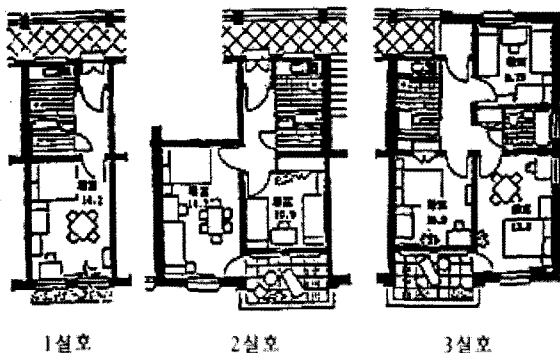


그림 5. 1실호, 2실호, 3실호 (자료 : 友淸貴和,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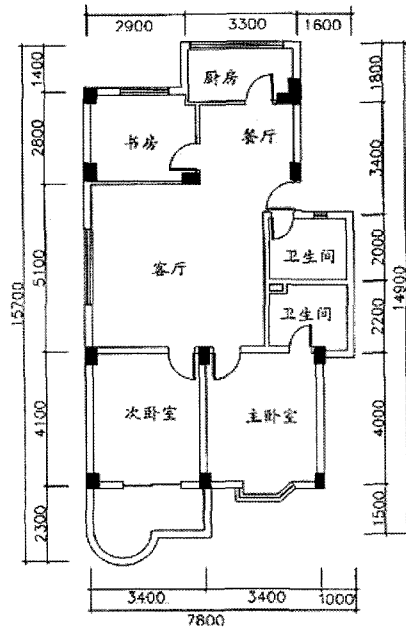


그림 6. 현대 집합주택의 일반적 평면
(자료 : 거실평면설계사례, 2002, p. 17)

각된다. 또 주방에는 반드시 환기창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거실이 면할 수 있는 외피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외기에 접하는 벽면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평면에 요철을 두는 것이 중국 주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6; 심우갑 외, 2000>.

2) 중국주택의 공간사용방식

(1)청

청(廳)은 식사·단란·접객이 행해지는 개구부의 수가 2개 이상인 공용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찬청(dining), 단란·접객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객청(living)이라 부른다.

(2) 주방 및 식사공간

중국 주택에서 청의 중요성과 함께 또 다른 특징은 주방을 독립시키는 구성과 규모를 들 수 있다(이용훈 외, 2003; 심우갑 외, 2000). 이는 중국요리방법이 주로 기름을 이용하여 후라이팬에 볶기 때문에 취사시 냄새나 연기가 많이 발생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방에 반드시 외기로 면하는 창을 확보하는 것도 특징이며(최금화, 2001, p.20), 이로 인해 보통 LD/K형이 두드러지면서 평수가 커지면 L/D/K형으로 구성된다. 또 규모에 있어서는 간단한 찌지류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주방공간 규모가 한국보다 작게 요구될 뿐 아니라 부수적인 수납공간도 작다(최금화, 2001).

특히 식당의 독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소규모 평면에서도 일반화된 것은 중국 주택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식사를 단란의 중요한 행위로 여기는 생활방식과 관련이 있다(이용훈 외, 2003; 심우갑 외, 2000).

(3) 기거양식과 난방방식

중국인들의 전통적 기거양식을 보면, 집에서 항상 신

발을 신고 지냈으며, 침대, 의자, 식탁 등을 사용한 입식 생활을 하였다. 최근 주택에서는 청결을 위해서 신발을 벗더라도 항상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다(최금화, 2001, p.25; 이지은, 1998, p.39).

현재는 주택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신발을 갈아 신기 위한 공간과 신발장 같은 수납공간을 갖춘 평면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몇몇 신발장이 있는 경우에도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趙萍, 2000). 이는 중국 주택의 실내에 신발을 벗는 새로운 주생활이 정착하였지만, 아직 이런 습성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주택의 난방방식으로는 북경을 위시한 화북지방에서는 온돌과 유사한 항(炕, 중국에서는 ‘캉’이라고 부른다)이 일반화되었다(손세관, 2001, p.52). 이에 비해 강남 지방의 대표적인 주택인 휘주 주택에서는 날씨가 더운 지역이므로 난방시설이 없고(김성우 외, 2000), 추운 겨울에는 이동식의 간단한 난로를 사용해 추위를 견디는 정도이다(손세관, 2001). 현대의 주택에서도 구조적인 난방시설 없이 온풍기나 온열기를 사용하여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특성

1) 주택 특성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남경시에 위치한 집합주택 단지 중 부동산 중심구역으로 시중심과 가깝고 자금산, 월야호동 남경 특색의 풍경지로 여겨지면서 교통이 편리한 1995년 이후에 지어진 5개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용공간구성은 L+D+K(사례#19, 23, 31), L/D+K(사례#03, 10, 12, 14, 15)으로 파악되었다.

(2) 각실 배치의 특성으로 전면에 침실이 배치되고 거실은 후면에 배치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사례#03, 06, 12). 이는 중국주택에서 거실보다 개인의 침실을 중시함에 따른 결과라 해석된다.

(3) 주택의 규모는 남경시 전체 주택시장에서 인기있는 주택규모인 80~100 m²보다 넓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3침실 구성을 하고 있다.

2) 가구 특성

조사대상의 가족구성을 보면, 가장의 나이는 평균 41.1세이고, 주부의 나이는 평균 38.1세로 초등교육기(21가구,

45.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수는 4인(M=3.8인), 자녀수는 2인(M=1.8인)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의

표 1. 조사대상 아파트

아파트 이름	금릉어화원 (金陵御花園)	금릉어정원 (金陵御花園)	월야호화원 (月牙湖花園)	매화산장 (梅花山庄)	타이핑 화원
건축년도	1996	1998	1998	1999~2003	.
층수	연립주택 6층	6층	5층	7층 고층 (25층)	7층
주동형태	계단형	계단형	계단형	계단형 타워형	계단형
세대수	100	130	700	1900	.
주택규모 (분양면적)	150~170 m ² -48가구 200 m ² 이상 -52가구	160 m ² -130가구	80 m ² 이하 -20가구 125~135 m ² -300가구 150 m ² -70가구 200 m ² -300가구	80 m ² -95가구 100~140 m ² -1490가구 141~160 m ² -285가구 200 m ² -30가구	.
조사 세대수	14가구	11가구	9가구	10가구	6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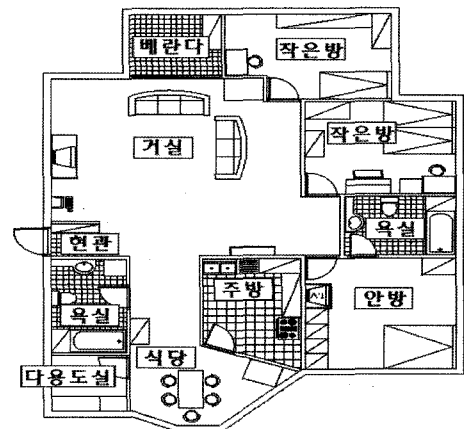


그림 7. 금릉어화원 1 (조사가구 사례 #19 - 한국인 가구: 가족수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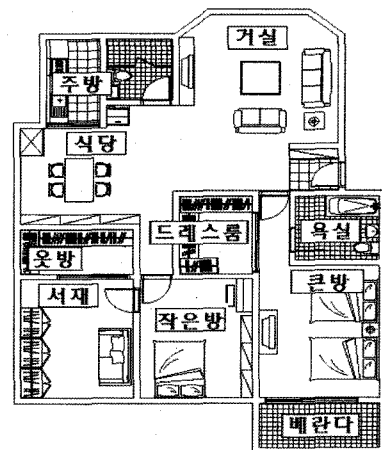


그림 8. 금릉어정원 1 (조사가구 사례 #03 - 한국인 가구: 가족수 4명)

5) 2003.8. 연구자가 남경 현지 건축업자 및 거주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6) 금릉어화원(1996년 준공), 금릉어정원(1998년 준공), 월야호화원(1998년 준공), 매화산장(1996~2003년 준공), 조사사례의 88.0%가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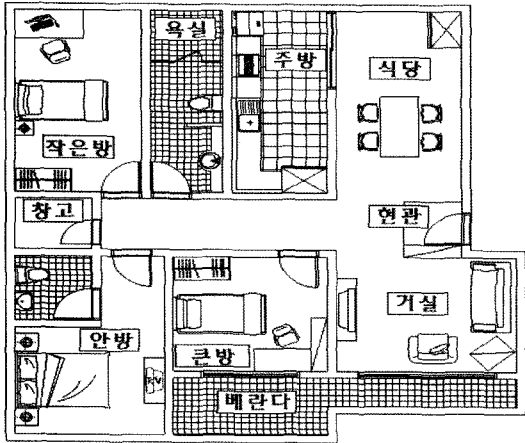


그림 9. 월아호 11 (조사가구 사례 #10. 한국인 가구: 가족수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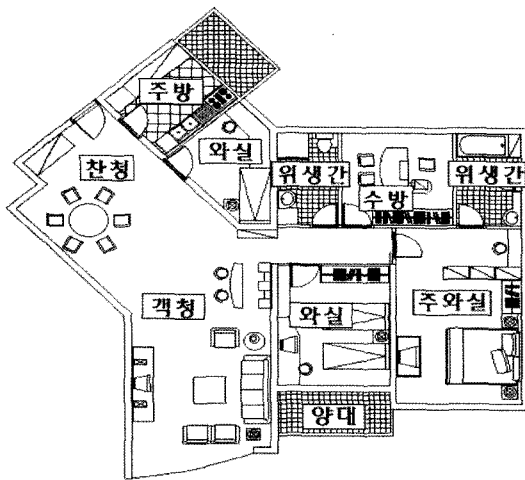


그림 10. 매화산장 내 호반지성(자료 : 분양팜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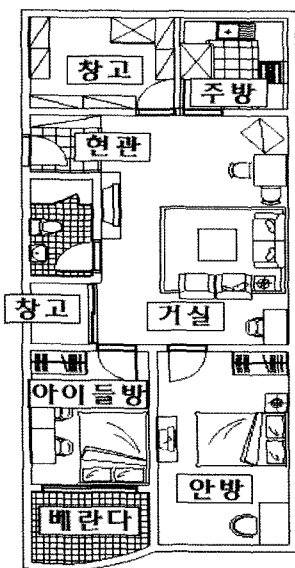


그림 11. 타이핑화원 1 (조사가구 사례 #30. 한국인 가구: 가족수 4명)

경우, 중국인 가구도 평균 3.8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수에 있어서는 평균 0.9인으로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1자녀 정책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가장:84.0%, 주부:53.2%), 관리직(43가구, 86.0%)이 가장 많았고, 소득의 경우 401~500만원(한화)이 12가구(26.1%)로 가장 높았다.

3) 거주 특성

소유형태의 경우는 회사에서 임대를 해주는 사례(30가구, 60.0%)와 회사 소유의 사택(9가구, 18.0%)의 사례가 매우 많았다. 현 주택 거주 기간을 보면 1년 미만(27가구, 54.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년 미만(9가구, 18.0%)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종류에는 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35가구, 71.4%)가 많고, 주택의 규모(한국규모)는 평균 45.2평으로 비교적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난방방식 및 기거양식

1) 난방방식

난방방식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인 난방시설이 없는 강남지방 중국주택에서는 대부분의 가구(46가구, 92.0%)에서 냉방과 난방을 겸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38가구(76.0%)가 바닥의 난방을 위해 전기판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후 설치한 난방방식에서도 전기판넬이 37가구(80.4%)로 가장 많았다. 이로써 난방방식에서 전기판넬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설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닥온수난방을 설치한 주택이 2사례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의 난방방식에서 온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 가구는 기존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로는 생활의 불편을 느껴 자연스럽게 한국의 온돌과 유사한 형식을 찾아 대체한 모습이 전기판넬인 것이다. 따라서 전기판넬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난방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 한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주거생활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에서도 48가구(96.0%)가 난방방식으로 응답하여, 중국 주택에서의 난방방식이 한국 주생활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인 주생활이 온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거양식

주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문화요소로 생활양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생활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기거양식에 따른 입식과 좌식생활⁸⁾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인 가구의 중국주택 안

7) 1년미만 거주 경우도 최소 10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임.

8) 주생활 수행에서 동작에 따른 행동양식으로, 가구 등을 신체지지구로 하는 행동양식을 입식, 바닥을 신체지지구로 하는 행동양식을 좌식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난방방식 빈도(%)

항목 구분	현재 난방방식 (중복응답허용)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방식 (2개선택분항)	이사후 설치한 난방방식 (2개선택분항)
바닥온수난방	2(4.0)	3(5.3)	0(0.0)
라지에이터	10(20.0)	2(3.6)	0(0.0)
냉난방기	46(92.0)	25(44.6)	1(2.8)
전기판넬	38(76.0)	24(42.9)	37(80.4)
전열기	17(34.0)	2(3.6)	8(16.8)
기타	3(6.0)	0(0.0)	0(0.0)

에서의 기거양식(여러 손님의 식사행위, TV시청 방식, 침실의 침대사용 유무, 신발을 갈아 신는 장소,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 방 청소 방법, 슬리퍼 사용 유무)을 살펴보았다.

‘여러 손님의 식사행위’를 묻는 문항에서 45가구(91.8%)가 좌식 상차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입식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손세관, 2001, p.243, 최금화, 2001, p.25; 이지은, 1998, p.39)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조사에서 시행한 몇몇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실⁹⁾을 파악할 수 있었다.

‘TV시청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본다’가 36가구(72.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서 본다(15가구, 30.0%)’거나 ‘그냥 바닥에 앉아 본다(7가구, 14.0%)’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 생활에 있어 가구의 입식화와 함께 생활의 입식화가 이루어짐으로써 ‘TV시청 방식’에 있어서는 입식생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여전히 바닥에 앉는 좌식생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해 본 몇몇의 중국가구¹⁰⁾에서는 한국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좌식생활과 달리 입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침실의 침대사용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49가구(98.0%)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침대를 기본 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부침실의 입식화 경향과 더불어 중국주택에서의 바닥 난방미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식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 주택 내에서의 탈화는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생활로 인하여 출입구에는 신을 벗고 신기 위한 공간과 신발 수납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신발을 갈아 신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현관 내’가 36가구(72.0%), ‘현관 밖’이 13가구(26.0%)로 나타났다. 또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에도 31가구(62.0%)가 ‘현관 내 신발장’에서, 20가구(40.0%)가 ‘거실 내 신발장’, 7

9) 중국인 가구의 사례조사에서 4가구(4/11)가 거실에서 소파와 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가구(3/11)가 식당에서 식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모두 입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중국인 가구의 사례조사에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것’이 10가구(10/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행위 방식 (여러 손님 식사, TV시청 그리고 침대 사용 유무)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여러손님 식사행위	좌식 상을 사용	45(91.8)	침대사용 유무	사용한다	49(98.0)
	식당에서 식탁사용	4(8.2)		사용하지 않는다	1(2.0)
TV시청 행위(중복 응답허용)	소파에 앉아	36(72.0)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15(30.0)			
	바닥에 앉아	7(14.0)			

가구(14.0%)가 ‘현관 밖 신발장’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신발을 갈아 신는 장소가 ‘현관밖으로’ 조사된 경우는 중국주택의 공간구성상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즉, 중국주택은 입구부분에 현관공간이 따로 없이 바로 거실로 연결되는 공간구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현관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거실과의 공간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발장의 위치에 있어서도 현관 밖에 설치되는 한국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중국주택에서 나타나는데 <그림 12,13> 이는 현관공간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적응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중국주택 내 탈화는 이제 대부분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인데(趙萍, 2000) 비해 평면 계획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공간구성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좌식생활에 따른 청결 중시 경향과 관련하여, ‘청소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손걸레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37가구, 74.0%), 실내 바닥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실내 공간에서 슬리퍼 사용 유무’의 조사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24가구(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정치 않은 경우(10가구, 20.8%)’,

표 4.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신발 갈아 신는 장소 및 보관하는 장소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신발갈아 신는 장소 (중복응답 허용)	현관 내	36(72.0)	신발 보관하는 장소 (중복응답 허용)	현관 내 신발장	31(62.0)
	현관 밖	13(26.0)		거실 내 신발장	20(40.0)
	기타	2(4.0)		현관 밖 신발장	7(14.0)
			기타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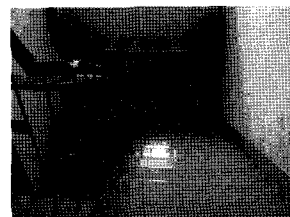


그림 12. 현관 밖 신발장 모습 (조사가구사례 #31-중국인 가구)



그림 13. 현관 밖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 (조사가구사례 #32-중국인 가구)

표 5.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방청소 방식 및 슬리퍼 사용 방식

항목	빈도(%)	항목	빈도(%)	
방청소 방법	손걸레로 걸레질한다.	37(74.0)	모든 장소에 항상 사용	24(50.0)
	밀대로 걸레질한다.	12(24.0)	방에서는 사용 안함	4(8.3)
	공기 청소기만으로 한다.	1(2.0)	일정하지 않음	10(20.8)
	합계	50(100.0)	사용하지 않음	7(14.6)
			기타	3(6.3)
		합계	48(100.0)	

‘사용하지 않는 경우(7가구, 14.6%), ‘방에서 사용 안 하는 경우(4가구, 8.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결을 중시하고 있지만 슬리퍼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온돌난방을 함으로써 신발을 벗고 맨발로 생활해 왔으나, 중국주택의 경우 온돌난방이 아님에 따라 동절기 바닥의 차가움으로 인해 슬리퍼를 신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¹⁾. 반면 중국인 가구에서는 대부분이 슬리퍼를 신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의 생활이 당대 이후부터 입식으로 행해짐으로써(Boyd, 1995), 집에서 항상 신발을 신고 지내 왔음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주택에서는 신발을 벗더라도 신발을 신는 생활습관에 의해 슬리퍼를 항상 신고 지내게 된다는 것이다.

3. 실사용 행태 및 만족도

1) 실사용 행태

(1) 거실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행위를 분석한 결과, ‘가족간의 모임·대화·오락(49가구, 98.0%)’, ‘가족이 함께 TV 시청(46가구, 92.0%)’ 등 가족단란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우할 손님 접객(49가구, 98.0%)’과 ‘접객식사(예우할 손님 4~5인 이하 식사: 22구, 44.0%; 예우할 손님 6인 이상 식사: 41가구, 82.0%)’가 빈번히 이루어짐으로써 주택 내에서 접객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거실은 가사작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빨래정돈(42가구, 84.0%)’과 ‘옷손질·바느질(37가구, 74.0%)’, ‘다림질(29가구, 58.0%)’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이는 청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족공동 공간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주생활(福島嗣仁 外, 1989)과

비슷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몇몇 사례¹³⁾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 중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살펴본 결과, 가족단란행위와 함께 접객행위가 나타났는데, ‘예우할 손님 접객(예우할 손님 4~5인 식사, 7가구(7/11))’과 ‘친한 친구나 이웃의 접객(친한 친구나 이웃의 4~5인 식사, 7가구(7/11))’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예우할 손님 접객과 친한 손님 접객 모두에서 손님의 수가 많을 때(5가구, 5/11)보다 손님의 수가 적을 때(7가구, 7/11) 거실에서 접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외식 문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면접에서도 손님접대에서 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¹⁴⁾ 한국 가구와 손님 접대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식사공간(식당)

식사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식사행위(42가구, 84.0%)’가 주로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친한 친구나 이웃 4~5인이하 식사(35가구, 70.0%)’, ‘예우할 손님 4~5인이하 식사(30가구, 60.0%)’인 것으로 나타나, 식사공간에서 예우할 손님 식사보다는 친한 친구나 이웃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으며, 접객행위에 있어서도 ‘예우할 손님 접대(20가구, 40.0%)’보다는 ‘친한 친구나 이웃의 접대(23가구, 46.0%)’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거실 (자료: 사례#31-중국인 가구)

11)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사용하는데, 여름에는 귀찮아서 그런지 다른 식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저(주부)만 사용해요.” (사례#26) “거의 사용안해요. 겨울에 신고 다른 계절에는 거의 안 신고요.” (사례#30)

12) 중국인 가구의 경우 ‘모든 장소에서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10가구(10/11)로 조사됨으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슬리퍼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 청은 ‘가족 간의 모임·대화·오락(10가구, 10/11)’, ‘가족이 함께 TV시청(6가구, 6/11)’ 등 가족단란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4) “집에서 준비하면 번잡스럽고 해서 밖에서 외식을 해요. 친한 친구가 오면 가끔씩 집에서도 먹습니다.” (사례#31-중국인 가구) “손님은 자주 오지 않는 편이죠. 그래도 가끔 오게 되면 상황을 봐서 집에서도 먹고 밖에서도 먹는데 주로 밖에서 먹는 편입니다.” (사례#32-중국인 가구)

한편, ‘친한 친구나 이웃의 4~5인 이하 식사’를 제외한 모든 접객식사행위, 특히 ‘6인 이상의 접객식사(예우할 손님 6인 이상 식사: 8가구, 16.0%; 친한 손님 6인 이상 식사: 8가구, 16.0%)’는 식사공간보다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현 주택의 공간구성에서는 식사공간이 여러 사람의 접객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식사공간보다는 거실을 보다 격식있는 공간으로 인식¹⁵⁾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주택에 사는 한국 가구의 공간사용은 주택의 공간구성이 바뀌었지만 공간에 대해 가지는 주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국가구 사례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식사행위(가족들의 일상적인 식사: 8가구, 8/11; 가족 중 한사람의 식사: 8가구, 8/11)’가 주로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친한 친구나 이웃 4~5인 이하 식사(9가구, 9/11)’, ‘예우할 손님 4~5인 이하 식사(6가구, 6/11)’ 순으로 나타났다. 손님의 접객식사의 경우 손님의 수가 적을 때는 식당에서 접객 식사가 이루어지나, 손님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식당과 거실에서의 접객식사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식 문화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부부침실 및 그 이외의 방

부부침실에서의 행위를 분석한 결과, ‘주부의 휴식(29가구, 58.0%)’과 ‘TV시청(10가구, 20.0%)’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생활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고, 아직 실호칭에서는 안방(22/30, 73.3%)이 남아 있으나 실제 사용에서는 안방이 가지고 있는 가족단과 접객 기능은 사라지고 있으며, 부부관련생활행위가 주로 이루어져, 사적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사용 행태는 중국인 가구의 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부부침실에서 ‘주부의 휴식(8가구, 8/8)’과 ‘TV시청(5가구, 5/8)’) 침실이 개인생활공간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개인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빨래정돈(8가구, 8/8)’과 ‘옷손질·바느질(4가구, 4/8)’, ‘다림질(2가구, 2/8)’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사작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도 파악되었다. 가사작업행위에 있어서 한국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거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중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작업행위를 개인생활공간에서 행함으로써 가사작업행위에 대한 인식의 한국인 가구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취침 시 사용하지 않는 여유의 방’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인 가구의 경우는 ‘놀이방이나 공부방(20가구, 40.0%)’, ‘옷방이나 물건 수납공간(19가구,

38.0%)’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납공간으로의 활용은 중국주택의 공간구성에서 창고나 다용도실과 같은 수납공간의 부족함¹⁶⁾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조리나 세탁을 위한 공간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작업행위는 ‘식품손질(47가구, 94.0%)’과 ‘김치 담그기(44가구, 8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세탁물을 삶는 장소(46가구, 92.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김치 담는 행위가 대부분의 가구(48가구, 96.0%)에서 행해지는 것은 중국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김치를 담는 한국인의 식생활이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빨래(44가구, 88.0%)’, ‘걸레세탁(44가구, 88.0%)’ 행위는 욕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에 관련된 가사작업행위가 대부분 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주택에서 세탁행위가 욕실보다는 다용도실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중국주택의 경우 대부분 다용도실 공간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욕실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욕실을 세탁용 욕실과 목욕용 욕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면접¹⁷⁾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 가구가 중국주택의 공간구성에서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실을 구분하는 사용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인 가구의 주생활에서는 세탁과 목욕을 구분하려는 요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가구와는 다른 한국인의 특성으로 중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작업행위로 ‘식품손질(9가구, 9/11)’과 ‘큰 그릇 씻기(8가구, 8/11)’가 나타났고, 특히하게 ‘걸레세탁(5가구, 5/11)’이 나타났다 이는 음식을 하는 장소에서 걸레를 세탁하는 행위를 비위생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주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한국인이 주방사용에 있어 중국인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욕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는 ‘손빨래(9가구, 9/11)’, ‘걸레 세탁(5가구, 5/11)’이 주로 나타남으로써 세탁에 관련된 가사작업행위가 대부분 욕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가구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16) “이 방은 물건 수납을 위해 창고로 사용해요. 그 외 창고로 쓸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게 한국과 좀 달라 불편해요.” (사례 # 02) “방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방은 서재방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에 있는 딸아이가 가끔씩 오면 그때는 서재에서 자죠.” (사례 # 22)

17) “바깥화장실은 욕조 떼어내고 다용도실처럼 쓰고 싶어요. 한국처럼 다용도실이 없어 불편하거든요. 중국은 다용도실 있는 집이 없어서.” (사례 # 07) “바깥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해요. 목욕은 안방 화장실에서 합니다.” (사례 #05,06,08,09,24,26,29)

15) 한국의 아파트 공간구성에서는 거실이 주택의 전면에서 위치함으로써 주택의 후면에 위치한 식당(식사공간)보다 격식을 갖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박수빈, 2001, p.66).

표 6.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가사직업행위 장소 빈도(%)

공 간 행 위	주방	식당 (식탁)	욕실	다용도실	기타	거의하지 않는다
식품손질(다듬기, 흫털기등)	47(94.0)	9(18.0)	0(0.0)	0(0.0)	1(2.0)	1(2.0)
김치 담그기	44(88.0)	7(14.0)	1(2.0)	0(0.0)	0(0.0)	2(4.0)
큰그릇을 씻는 장소	37(74.0)	2(4.0)	16(32.0)	2(4.0)	0(0.0)	1(2.0)
손빨래를 하는 장소	0(0.0)	0(0.0)	44(88.0)	6(12.0)	0(0.0)	0(0.0)
걸레를 세탁하는 장소	0(0.0)	0(0.0)	44(88.0)	7(14.0)	0(0.0)	0(0.0)
속옷 등 세탁물을 삶는 장소	46(92.0)	2(4.0)	2(4.0)	0(0.0)	1(2.0)	0(0.0)
세탁물을 말리는 장소	1(2.0)	2(4.0)	0(0.0)	30(60.0)	21(42.0)	0(0.0)

2) 실사용 만족도

실사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부침실(M=3.5)’ 과 ‘거실(M=3.3)’ 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식당(M=3.0)’, ‘화장실 및 욕실(M=3.0)’ 은 보통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주방(M=2.6)¹⁸⁾’, ‘창고 및 수납공간(M=2.7)¹⁹⁾’, ‘현관(M=2.3)²⁰⁾’, ‘다용도실(M=2.4)²¹⁾’ 의 만족도는 낮아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가 낮은 공간 중, 주방과 다용도실의 경우는 식생활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주택은 식생활에 따라 필요한 주방공간의 규모가 작게 계획되어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비교적 큰 공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필요한 가정집기들도 비교적 부피가 크고 많아서 그것을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용도실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방에 보조공간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그 이유로 ‘주방기구나 음식을 보관할 보조공간이 필요해서’가 39가구(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현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한국인 가구의

18) “조리하는 공간이 베란다 쪽에 있어서 음식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좋지만, 조리공간까지 거리가 멀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주방과 식당공간의 크기가 작아서 싫어요.” (사례 # 13)

19) “수납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재를 그냥 수납용 창고공간으로 사용하죠.” (사례 # 14,16,17)

20) “현관과 거실의 단차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발이 거실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또 문의 개폐가 현관밖으로 열리지 않고 거실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 신발이 끼여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신발장이 현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거실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 같아요.” (사례#01,02,06,08,10,15,23,25,28,29)

“처음에는 현관 내에 신발을 뒀는데 얼마 전부터 그냥 현관 밖에 다 두고 사용해요. 신발 보관도 신발장을 새로 사서 현관밖에 보관하죠. 현관쪽에 식당이 있어 밥 먹을때 신발이 보이니 너무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사례 # 06,14,18)

21) “다용도실이라고 불릴만한 공간이 없으니까요. 보관해야 할 식품을 현관 입구 창고 방에 두니까 동선이 길어 불편하죠..” (사례 # 01,02,19) “다용도실이 있어 좋긴한데, 별로 쓰임이 좋지 못해요. 수도꼭지가 없어서 한국에서처럼 빨래를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빨래를 넣고, 물건을 수납하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죠.” (사례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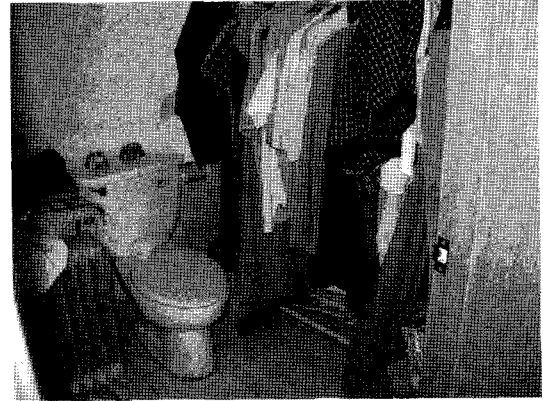


그림 15. 수납공간으로 변용한 예 (자료: 사례#19-한국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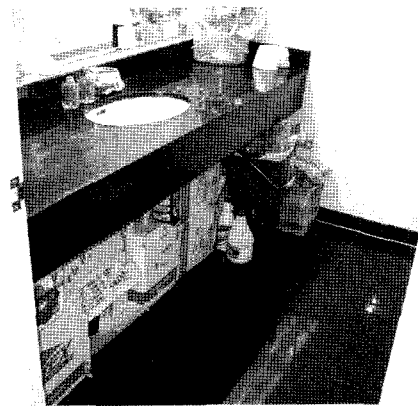


그림 16. 수납공간 부족의 예 (자료: 사례#26-한국인 가구)

탈화습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주택 내 현관공간이 정착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창고 및 수납공간의 낮은 만족도는 한국인의 주생활에서 보유물품의 수가 중국가구에 비해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인 가구의 수납요구가 중국주택에서 잘 수용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욕실의 만족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물사용 방식에서의 부조화에 따른 것으로(욕조이외의 바닥공간에 배수구멍이 없는 문제, 욕실바닥의 경사가 완만하여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 거실바닥과 욕실바닥의 단차가 많이 나지 않아 욕실바닥의 물사용이 어려운 문제 등) 공간구성과 우리의 주생활이 맞지 않음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욕실을 세탁용과 목욕용으로 구분하는 적극적 공간사용방식을 통해 불만족 요소를 조절함을 파악하였다.

4. 공간구성 선호

1) 공간구성 방식

‘공동공간구성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공동공간구성은 현 중국주택의 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거실과 식당, 주방에 대한 구성방식 선호를 교차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표 7>는 ‘모두 구획만 되고 개방

되어 있는 경우'가 17가구(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거실과 식당은 개방되고 주방만 독립된 경우'가 13가구(26.0%)로 나타났다. '거실이 독립되고 식당과 주방이 구획만 되고 개방된 것'은 선호하는 가구도 11가구(22.0%)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성희(1998)의 연구에서 거실·식당·주방이 구획은 되어있지만 개방된 형(L/D/K형이라 지칭)과 식당과 주방은 개방되고 거실만 독립된 형(L/DK형과 L+DK형이라 지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한국인 가구에서 공동공간구성에 대해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 구성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공적공간 구성방식 선호도 빈도(%)

LD 구성 방식	DK 구성방식	빈도(%)	
		공간 구획만 되고 개방	주방만 독립
식당과 거실 개방	2(4.0)	2(4.0)	4(8.0)
공간 구획만 되고 개방	17(34.0)	13(26.0)	30(60.0)
거실과 식당 독립	11(22.0)	5(10.0)	16(32.0)
합 계	30(60.0)	20(40.0)	50(100.0)

2) 남향선호

주택의 '전면에 배치하기를 원하는 실'에 대한 순위를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 '거실'이 39가구(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 '자녀실(21가구, 43.8%)'과 '안방(19가구, 39.6%)'이, 3순위에서도 '자녀실(15가구, 32.6%)'과 '안방(14가구, 30.4%)'이 높게 나타났다. 안방과 자녀실이 모두 개인생활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공간이나 주방에 비해 남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주택에서 거실과 방을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남향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주택이 가지는 특성인 남쪽에 주침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평면 형태(심우갑 외, 2000)라는 것과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조사에서 시행한 몇몇 사례²²⁾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국 주택에 있어 거실보다는 침실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바닥마감재 선호

바닥마감재는 각 공간의 사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주택의 각 공간에서의 주생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따라, 실별 현재 바닥마감재와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를 분석하였다<표 8>.

거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닥 마감재 및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로 '나무'가 42가구(85.7%)와 39가구(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실의 경우는 현재 바

표 8. 중국거주 한국인 가구의 실별 바닥마감재에 대한 선호 빈도(%)

현재 바닥 마감재	빈도(%)						
	공간	나무	장판	타일	대리석	기타	합 계
현재 바닥 마감재	거실	42(85.7)	2(4.1)	2(4.1)	3(6.1)	0(0.0)	49(100.0)
	침실	46(92.0)	3(6.0)	0(0.0)	0(0.0)	1(2.0)	50(100.0)
	주방	2(4.0)	0(0.0)	45(90.0)	3(6.0)	0(0.0)	50(100.0)
	식당	24(51.1)	3(6.4)	14(29.8)	6(12.8)	0(0.0)	47(100.0)
	현관	11(22.9)	0(0.0)	27(56.3)	9(18.8)	1(2.1)	48(100.0)
	욕실	0(0.0)	0(0.0)	48(96.0)	2(4.0)	0(0.0)	50(100.0)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	공간	나무	장판	타일	대리석	기타	합 계
	거실	39(95.1)	2(4.9)	0(0.0)	0(0.0)	0(0.0)	41(100.0)
	침실	34(82.9)	7(17.1)	0(0.0)	0(0.0)	0(0.0)	41(100.0)
	주방	15(36.6)	3(7.3)	19(46.3)	4(9.8)	0(0.0)	41(100.0)
	식당	30(75.0)	3(7.5)	4(10.0)	3(7.5)	0(0.0)	40(100.0)
	현관	7(17.1)	1(2.4)	21(51.2)	12(29.3)	0(0.0)	41(100.0)
욕실	0(0.0)	0(0.0)	35(87.5)	5(12.5)	0(0.0)	40(100.0)	

닥 마감재로는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46가구, 92.0%),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로 '나무'는 34가구(82.9%)인 반면 '장판'에 대한 선호가 7가구(17.1%)로 다소 증가하여, 한국의 주택에서 침실의 경우 한지장판이나 합성수지 장판을 사용하였던 경험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³⁾.

주방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닥 마감재 및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로 '나무'가 2가구(4%)와 15가구(36.6%), '타일'이 45가구(90.0%)와 19가구(46.3%)로 조사되었다. 식당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닥 마감재 및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로 '나무'가 24가구(51.1%)와 30가구(75.0%), '타일'이 14가구(29.8%), 4가구(10.0%)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의 중국가구 사례조사에서는 거실에서 나무 바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타일과 대리석을 선호하며, 식당에서는 대리석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인들이 좌식생활로 인해 바닥의 차가움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주방과 식당에서 현재 바닥 마감재로 쓰고 있는 '타일'을 낮게 선호 하는 것은 면접조사 결과, 바닥이 차갑고, 접시나 그릇을 떨어뜨릴 경우 쉽게 깨지거나, 물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지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또한 거실과 주방, 식당에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려는 경향은 한국의 아파트 평면에서와 같이, 각

23) "장판에 익숙해서 그런지 중국 오니까 장판이 그리워요. 한국 가서 장판위에 앉으면 어딘가 모르게 고향에 온 것을 실감하게 된 다니까요."(사례#06)

24) "타일이라 겨울에 엄청 차요. 물 묻었을 때 미끄럽고 위험해요. 주방에는 그릇 같은 거 떨어지면 바로 깨지고, 한국에서는 장판 같은 거 쓰잖아요."(사례#02,18,19,22,27) "바닥이 너무 차요. 대리석 이게 이 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차거든요. 그리고 에들의 경우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때도 잘 타거든요. 닭아도 계속 시커멓게 먼지가 쌓이고. 이게 먼지가 잘 붙는 거 같아요"(사례#03,10)

22) 중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부부침실(7가구, 7/11), 2순위에서 거실(5가구, 5/11), 3순위로는 자녀실(4가구, 4/11)이 높게 나타났다.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공간의 일체성을 주려 는 경향을 계속 가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중국거주 한국인들이 중국주택에 거주하면서 나타나는 주생활 모습을 통해 한국의 주문화에서 지속성을 가지는 요소와 변화되는 요소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방식에서는 전기판넬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가 많아, 온돌 난방방식을 유지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주거의 주생활에서, 온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성이 강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2) 기거양식은 첫째, 실별 차이로 부부침실은 침대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입식생활로, 거실은 입식과 좌식생활이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의 생활특성인 탈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관공간이 입식을 위주로 한 중국주택에서는 정착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관공간과 신발장에 대한 요구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인의 좌식생활로 인한 주생활 특성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실사용 행태에서는, 첫째, 거실은 가족단란행위와 접객과 가사작업 등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접객 식사행위도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생활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됨을 파악하였다. 둘째, 식사공간은 가족식사 중심의 가족단란공간으로 거실에 비해 덜 격식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부부침실은 개인 생활공간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안방과 같은 공간사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인의 주생활특성에서 안방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욕실에서는 세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파악하였고, 특히 욕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세탁용 욕실과 목욕용 욕실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목욕과 세탁을 구분하려는 생활방식을 파악하였다.

(4) 공용공간의 선호에서는, 공용공간구성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 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면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실은, 거실, 부부침실, 자녀실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침실과 자녀실이 개인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주방에 비해 남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실과 방을 중심으로 하는 남향선호에 대한 지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바닥 마감재에 대한 선호에서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나무’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인 가구가 ‘대

리석’을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바닥재가 기거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입식생활을 하는 중국인 가구가 한국인보다 바닥의 차가움에 덜 민감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접변의 기회가 증가되는 오늘날 한국 주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 주거문화의 구체적인 전망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국제 정치상의 이유로 인해 중국으로의 진출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해 본연구의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기간 또한 짧아 한계를 가진다. 또한 조사대상 수집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례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손세관(2001),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서울, 열화당.
2. 이만형·임길진(1991),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 나남.
3. 최금화(2002), 조선족과 한족의 주거공간사용방식 및 요구에 대한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4. 김홍식(2001), 한국민가를 중심으로 한중일 민가 평면 구성에 대한 비교, 대한건축학회, 2001년 동아시아 주거문화 국제 심포지엄, pp.17-35.
5. 심우갑 외(2000), 한·중·일 집합주택 주호 평면의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지논문집 16(11), pp.53-62.
6. 이용훈·강인호(2003), 공동주택 평면의 규모별 국제 비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2), pp.3-6.
7. 이지은(1998), 동아시아 문화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정희남 외(2002), 한·중 토지연구(II), 국토연구원.
9.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pp.79-91.
10. Boyd, A.(1995), 중국의 건축과 도시, 이왕기 역, 기문당.
11. Kent, S.(1993), Domestic Architecture and Use of Space, Cambridge.
12. 남경시인민정부신문판공실(2003), 중국남경, 오주전파출판사.
13. _____(2002),居室平面設計實例,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4. 上北恭史(1994.9), 上海の都市住宅プラン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5. 上北恭史(1995.8), 上海の都市住宅プラン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6. 友清貴和(1989), 中國における都市住宅の平面構成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集, pp.1-2.
17. 姚琳 外(1998.9), 中國における都市部の居住狀況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49-50.
18. 林方亮 外(1988.10), 中國における都市住宅の平面構成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7-8.
19. 趙萍 外(2000.9), 中國における都市集合住宅における「上·下足分離の住様式の進展とその動向,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20. 表野聖子 外(1999.9), 中國における都市住宅の平面構成と接客空間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pp.47-48.

(接受: 2004. 12. 27)